



보도	2026.4.7.(화) 14:00	배포	2026.4.7.(화)
담당부서	디지털금융총괄국 디지털리스크분석팀	책임자	국 장 이 석 (02-3145-7120)
		담당자	팀 장 이정운 (02-3145-7540)
			선 임 정지훈 (02-3145-7541)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 추진 과제】

사전 예방 중심의 디지털 리스크 감독체계 확립을 위한 「금융보안 패러다임 전환 간담회」 개최

I | 간담회 개요

- 금융감독원 (원장 이찬진) 은 국회, 금융협회, 국내외 보안업계 등과 함께 금융보안 패러다임을 ‘사전예방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
 - 이번 간담회는 현재 금융권의 보안 의식과 위협관리 수준, 그리고 금융감독원의 감독방식으로는 끊이지 않는 IT·정보보안 사고를 근절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에서 마련
- 국회 정무위 이정문 의원, 주요 금융협회장 (은행·금투·생보·손보·여전), 금융보안원장, 학계, 국내외 보안업계 대표 등이 한자리에 모여
 - 금융감독원이 마련한 사전 예방적 디지털 리스크 감독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고, 효과적 IT·보안 위협 통제 방안, 국내외 모범사례 등을 공유
- 참석자들은 보안 위협이 지능화·정교화되는 상황에서 IT·보안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금융보안을 중시하는 문화를 내재화해야 하며,
 - 이를 위해서는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경영진 책임 의식 강화, 조직 문화 개선, 인적·물적 투자 확대 등 근본적 변화를 이뤄야 한다는데 공감

「금융보안 패러다임 전환 간담회」 개요

- ☑ **일 시** : '26. 4. 7.(화) 14:00~15:30 (1.5h)
- ☑ **장 소** : 금융감독원 9층 대회의실
- ☑ **참 석 자**
 - **【금 감 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종오 디지털·IT 담당 부원장보
 - **【정 무 위】** 이정문 의원
 - **【금융협회】**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
 - **【유관기관】** 박상원 금융보안원장
 - **【학계·산업계】** 강병훈 카이스트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민기식 SK실더스 대표이사, 박상규 팔로알토네트웍스 한국지사장

시간	행사 내용
1부: 사전 행사 14:00 ~ 14:20	【개 회 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모두발언】 이정문 의원
2부: 본 행사 14:20 ~ 1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 사전예방적 디지털 리스크 감독방안 (20분) ☞ 금융감독원 이 석 디지털금융총괄국장 ▶ ② 국내 사이버 보안 동향 및 대응 방향 (10분) ☞ SK실더스 김병무 부사장 ▶ ③ 글로벌 사이버 보안 동향 및 대응 방향 (10분) ☞ 팔로알토네트웍스 구자만 전무
3부: 논의 15:00 ~ 15:30	▶ 의견 교환

II | 개회사 및 모두발언 주요 내용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금융권의 침해사고·전산장애는 기본적인 의무 미준수나 내부통제 미흡에 기인한 경우가 많았다고, '금융보안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역설

-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이 먼저 감독방식을 기존의 사후제재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하면서
 - 금융회사의 선제적 위험 관리를 확립하고, 사고 개연성이 높은 고위험사를 선별·집중 관리하는 한편, 사고 대응 체계 정비 등을 통해 침해사고 발생 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힘
 - 특히, 기본적 의무 미이행 또는 내부통제 미흡으로 침해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강조
- 또한, 국회와 금융협회에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 국회에는 대규모 정보보안 사고 및 금융소비자 피해를 실질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에 대한 조속한 처리와 관심을 부탁
 - 금융협회에는 업권내 금융보안을 중시하는 문화 정착과 IT·정보보안 관련 인적·물적 투자 확대를 당부
- 이정문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금융권에 해킹 등 IT 사고가 빈발하고 있음을 우려하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를 통해 소비자 신뢰를 굳건히 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
 - 이에 금융감독원의 사전예방적 감독 전환이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하면서, 국민이 디지털금융을 마음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와 금융감독원이 철저한 IT 리스크 관리를 통해 사고를 예방해 달라고 당부
 - 또한, 금융권의 정보보호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입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힘

1 사전예방적 디지털 리스크 감독 방안 (금융감독원)

□ 금융보안에 대한 금융회사 임직원의 인식을 개선하고, 금융회사 스스로 IT 리스크를 조기 인식·적시 대응하는 '선제적 위험관리'를 확립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제반 감독 수단을 재설계

- ① **(금융보안 인식 전환)** ① 패러다임 전환을 공식화 (금번 간담회) 하여 변화의 계기를 마련하고, ② 맞춤형 소통 (경영진 간담회, 실무자 워크숍·세미나) 등을 통해 금융회사 임직원의 금융보안 의식과 역량을 지속적으로 제고
- ② **(선제적 위험관리 정착)** ① IT자산 식별·관리 강화, ② 취약점 분석·평가 내실화, ③ 자율 시정 활성화 등을 통해 금융회사 스스로 위험요인을 조기에 파악·대응하고, 침해사고 등에 적극 대비하도록 유도
- ③ **(사전예방적 감독 전환)** ① 보안 취약점 감독 내실화, ② 高위험사 선별·집중관리 등을 통해 사고 예방 장치들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감독
 - ③ 상시 감시·환류 체계를 고도화*하여 금융회사의 선제적 위험관리와 금융감독원의 사전예방적 감독을 유기적으로 연계

* '26.2월 본격 가동한 '금융보안 통합관제 시스템 (FIRST)'을 통해 금융감독원 → 금융회사 위험요인을 신속 전파 및 자율 점검·시정하고, 금융회사 → 금융감독원 조치 결과가 적절한지 집계·평가

- ④ **(사고 대응 체계 확립)** ① 사고 대응 체계 정비, ② 비상 대응 훈련(합동 재해 복구 전환 훈련, 블라인드 모의해킹, 버그바운티 등)을 통해 취약점을 발굴·보완하고, 유사시 서비스가 신속히 재개되도록 디지털 복원력 강화
- ⑤ **(제도 개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지원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선제적 리스크 관리'와 금융감독원의 '사전 예방적 감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 (붙임) '사전예방적 디지털 리스크 감독 방안 주요 내용' 참고

2

국내 사이버 보안 동향 및 대응 방향 (SK실더스)

- 통신, 유통, 금융 등의 생활 밀접 분야에서 기본적인 관리 소홀에 따른 침해사고나 개인정보 유출이 잇따르고 있으며, 오픈 소스 플랫폼을 통한 악성코드 유포, 랜섬웨어 공격도 증가 추세
- 다양화·고도화하는 침해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SW 공급망 관리*, 공격표면 관리** 등 취약 요인에 대한 선제적 식별·보호 전략이 필수
 - * SW 공급망 관리 : SW 개발, 배포, 유지 보수 등 개발부터 활용까지의 쏘 단계에서 보안 위협을 식별·감시·통제하는 보안 절차 및 기술
 - ** 공격 표면 관리 : 사이버 공격이 발생 가능한 모든 IT 자산 (서버, 네트워크, 클라우드 등) 을 식별·감시·통제하여 침해사고를 예방하는 보안 절차 및 기술
- 특히, 견고한 보안체계 수립·유지를 위해서는 경영진의 관심, 정보 보호 투자 확대, 인력 양성 등 전사적 차원에서 지원 필요

3

글로벌 사이버 보안 동향 및 대응 방향 (팔로알토네트웍스)

- 중동사태 등으로 지정학적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가를 배후에 둔 해킹 조직의 주요 기반 시설 사이버 공격이 빈발
- AI 활용* 등 공격기법 지능화·정교화, 랜섬웨어 공격 확산 등으로 글로벌 사이버 위협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
 - * AI 모델을 활용한 사이버 공격은 24시간 작동하며, 공격은 한 번만 성공하면 되지만 방어는 모든 공격을 막아야 하는 비대칭 구조로 방어자의 부담이 가중
- 사이버 보안이 전략적·경제적·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민관이 함께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선제적 대응 필요

IV

참석자 발언 요지

- 각 금융협회장들은 사이버 위협 등에 대한 대응 역량이 금융회사의 평판·신뢰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IT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금융보안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 오늘 논의한 '사전에방적 감독방안'이 각 금융업권에서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화답
- 박상원 금융보안원장은 보안 위협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사전에방적 감독'이 원활히 작동되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 침해사고 대응 훈련 내실화, 금융보안 수준 진단 체계 도입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침해 공격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힘
- 강병훈 카이스트 교수는 빈발하는 대규모 침해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IT 자산의 철저한 식별·관리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 특히, 상대적으로 보안에 취약한 중소 금융회사들이 필수적인 IT 내부통제를 수립·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제안

V

향후 계획

- 오늘 간담회를 시작으로 금융보안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사전예방적 감독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제반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
- 또한, 금융권 전반의 보안 의식 제고와 선제적 리스크 관리 확립을 위해 금융회사, 보안업계 등과 긴밀히 소통할 계획

※ (별첨)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개회사 1부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

추진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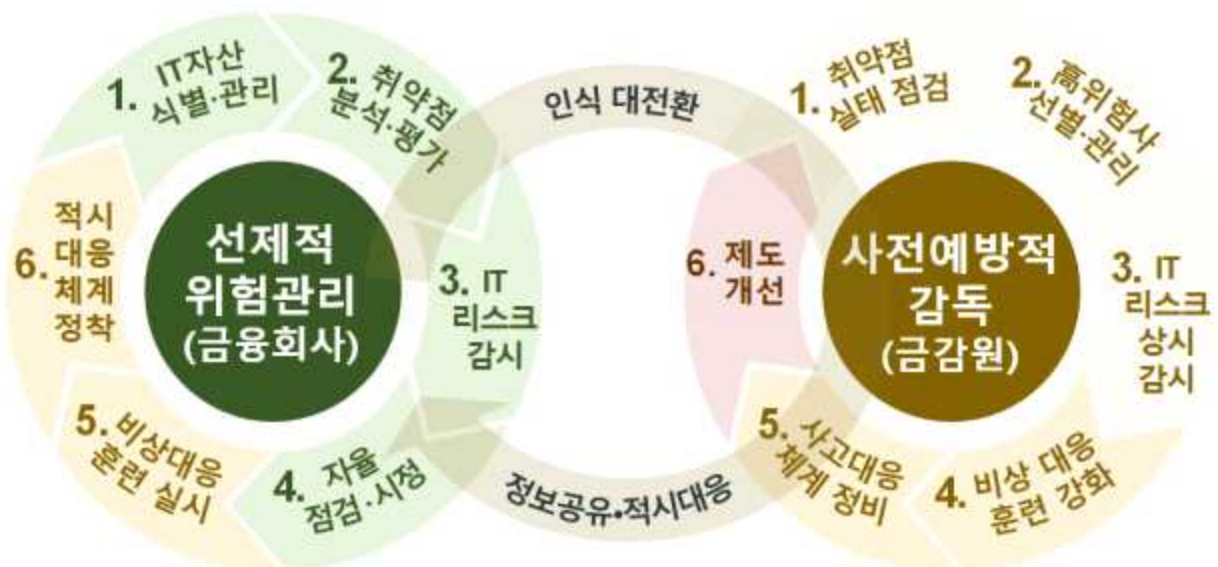
◆ 금융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디지털 금융환경** 구축

주요 추진전략 및 방안

추진전략

책임 의식 제고, 감독방식 전환, 제도 보완을 통해
금융회사의 **보안 의식**과 **위험 관리 방식**을 개선

1. 금융보안 인식 전환	(1) 패러다임 전환 공식화	(2) 경영진 간담회 (CIO·CISO)	(3) 실무진 워크숍·세미나
2. 선제적 위험관리 정착	(1) IT 자산 식별·관리 강화	(2) 취약점 분석·평가 내실화	(3) 자율 시정 활성화
3. 사전예방적 감독 전환	(1) 보안 취약점 관리·감독 강화	(2) 고위험사 선별·집중 관리	(3) 상시 감시·환류 체계 고도화
4. 사고 대응 체계 확립	(1) 사고 대응 체계 정비		(2) 비상 대응 훈련 강화
5. 제도 개선	(1)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 법령 개정 및 가이드라인 수립		



- ◆ 금융권의 보안에 대한 인식 전환을 시작으로 금융회사가 선제적 위험관리 체계를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금융감독원의 감독방식도 사전예방 중심으로 운영하는 한편
 - 금융감독원의 사전예방적 감독과 금융회사의 선제적 위험관리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통합관제시스템 등을 활용해 정보공유·적시대응하는 환류체계 정립

1 금융보안 인식 전환

- ① 패러다임 전환을 공식화하여 변화의 계기를 마련하고, 맞춤형 소통 (② 경영진 간담회, ③ 실무자 워크샵)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보안 의식·역량 제고
 - ① (전환 간담회) 국회, 금융협회, 보안전문가 등과 금융보안 패러다임 변화 필요성을 논의하고, '사전예방적 전환'을 공식화 (4.7일 개최)
 - ② (경영진 간담회) CIO·CISO 등과 긴밀히 소통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금융회사의 보안 의식 제고 및 선제적 위험관리를 독려 top - down approach
 - ③ (실무자 워크샵·세미나) 최근 보안 이슈, 사이버 공격·대응 사례, 위험관리 기법 등을 공유하여 보안 역량 제고 bottom - up approach

2 선제적 리스크 관리 정착 금융회사

- ① IT자산 식별·관리 강화, ② 취약점 분석·평가 내실화, ③ 자율 시정 활성화 등을 통해 금융회사 스스로 위험요인을 조기에 파악·대응하고, 침해사고 등에 적극 대비할 수 있도록 유도
 - ① (IT자산 식별·관리 강화) 모든 IT 자산을 빠짐없이 철저히 관리하고, 중요도 별로 내재된 취약점을 체계적으로 식별·보완하도록 유도
 - ② (취약점 분석·평가 내실화) 실태점검 등을 통해 취약점 분석·평가제도*가 실질적인 사고 예방 장치로 작동하도록 유도

*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 기반시설의 보안 취약점을 분석·평가 (연 1 회 이상) 하고, 취약점에 대한 보완 조치를 이행할 의무 존재 (전자금융거래법 §21의3)
 - ③ (자율 시정 활성화) 중요한 IT 리스크 또는 보안상 취약점을 능동적으로 파악하여 적시에 점검·개선하는 '자율 시정' 체계 활성화

3

사전예방적 감독 전환 금융감독원

- ① 보안 취약점 감독 내실화, ② 高위험사 선별·집중관리 등을 통해 사전예방 장치들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감독하고, ③ 상시 감시·환류 체계를 고도화 하여 선제적 위험관리 금융회사와 사전예방적 감독 금융감독원을 유기적으로 연계
- ① (보안 취약점 감독 내실화) 금융회사가 보안 취약점 분석·평가 및 보완 프로세스를 충실히 실행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분석 결과에 따라 정기·불시 현장점검(Patrol)을 실시
- ② (高위험사 선별·집중 관리) 사고 개연성이 높은 高위험사를 선별하여 경영진 면담 등을 통해 취약점 개선을 촉구하고, 미흡하거나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현장 점검·검사 후 엄중 제재
- ③ (상시 감시·환류 체계 고도화) '26.2월 본격 가동한 '금융보안 통합관계 시스템 (FIRST)'을 통해 금융감독원 → 금융회사 중요 보안 위협요인을 신속 전파 및 자율 점검·시정하고, 금융회사 → 금융감독원 조치 결과가 적절한지 집계·평가

4

사고 대응 체계 확립

- ① 사고 대응 체계 정비, ② 비상 대응 훈련 (합동 재해 복구 전환 훈련, 블라인드 모의해킹, 버그바운티 등)을 통해 취약점을 발굴·보완하고, 유사시 서비스가 신속 재개되도록 디지털 복원력 강화
- ① (사고 대응 체계 정비) 침해사고·전산장애 발생 시 대응 절차를 표준화 하고, 중대 사고 발생 시 체계적이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권 중대 전자금융사고 대응 가이드라인」 마련
- ② (비상대응 훈련 강화) '합동 재해복구 전환 훈련', '블라인드 모의해킹', '버그 바운티' 등을 확대·강화하여 비상 대응 역량 제고

5

제도 개선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등을 통해 '선제적 리스크 관리 금융회사'와 '사전 예방적 감독 금융감독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금융위 등 관계기관 협업)
- CEO·CISO 보안책임 강화, 징벌적 과징금, 정보 보호 공시 도입 등을 통해 금융권의 정보보호 수준 제고